

2004년

9월 1일

제 29호

KBS

社友會報

社友會 目標

- 親睦 · 福利增進
- 相扶相助
- 放送文化暢達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 / 발행인 서병주 / 편집인 한중광 / 우110-310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09 / 전화 (02) 733-2189, 732-8159/ 팩스 (02) 3210-1449

친목활동 개선방향 수렴중

내년초부터 시행예정

사우회는 각 친목분과의 활동개선방향을 논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분과 위원장회의는 8월17일 국한된 참여율, 경비의 편중지출, 활동목적의 희석 등을 친목활동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사회 간담회는 8월 20일

순수취미활동 체계로 전환, 자생적 운영 등의 발전적 개편안과 순수한 친목증진사업조직 신설안 등을 검토했다.

앞으로 사무국이 사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KBS출신 국회의원 초청 만찬 모임



사우회는 8월 23일 저녁 6시 여의도 신동양에서 'KBS출신 국회의원 초청 만찬회'를 가졌다. 김병호, 류근찬, 박성범, 박찬숙, 이계진 등 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외무장관 이윤성위원과 당수 수행중인 전여옥위원은 불참했다. 사우회측에서는 서병주 회장을 비롯해서 30여명의 임원이 참석, KBS출신 국회의원들과 3시간동안 환담을 나누고 앞으로 자주 회동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이중문)

사무국, 회원카드 작성독촉 회수율 28%에 불과

사우회 사무국은 '회원카드' 작성 및 송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재차 당부했다. 회원카드 회수율은 현재 28%

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무국은 특히 자녀난과 희망 분과위원회를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라디오, 중동진출

9월부터 KBS 제1라디오의 방송 권역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된다.

글로벌센터(글로벌전략)는 국제위성 라디오 방송사인 WorldSpace 의 AsiaStar 위성을 통해 1라디오를 송출하기로 (주)아미위성방송과 8월에 계약을 체결했다.

소출력라디오 5곳 시범운영 방송법 개정안 마련

방송위원회는 소출력 라디오 5곳(수도권 2곳, 비수도권3곳)을 선정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소출력라디오는 구·군 단위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우리 동네라디오'로 10W 정도의 출력으로 반경 5Km안팎의 지역에서 들을 수 있다.

현행 방송법에는 소출력라디오 신설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통부가 방송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사우회 회원 신분증 8월말 우송 2차신청은 9월 1일~20일

사우회 회원증 발급은 8월 19일 현재 286명이 신청한 가운데 1차 마감을 끝냈다. 8월말까지 회원증을 우송할 예정이다.

2차신청은 9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제작비 7,000원과 명함판 사진 2매를 사무국으로 보내야 한다.

하반기 친목 · 취미행사 일정

금년 하반기 친목 · 취미 활동일정이 아래와 같이 확정 됐습니다. 사우회 발전의 원동력이 참여에 있습니다. 회우들이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참여도 환영합니다.

낚시

- ♣ 일시 : 10월 8일(금) 오전 6시반 출발
- ♣ 행선지 : 강화갈정저수지

탐식

- ♣ 일시 : 10월 15일(금) 오전 6시반 출발
- ♣ 행선지 : 남한강 상류

바둑

- ♣ 일시 : 10월 26일(화) 낮 11시
- ♣ 장소 : 외부기원물색중, 추후 발표

등산

- ♣ 일시 : 11월 5일(금) 낮 11시
- ♣ 집결지 : 관악산 입구 (서울대 입구방향)

KBS사우회

'적기가' 방송, 사과

KBS 1TV의 '미디어 포커스'가 8월 14일 북한의 '적기가(赤旗歌)'를 패러디만화 코너 '시사 플래시'의 배경음악으로 40초간 사용, 물의를 일으켰다.

KBS는 "이번일은 음악담당자와 제작진 전체의 실수이며 시청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편)

회비내신분

- 유인동 허인수 김진옥 이남무 하희호 김기준 이철영
- 조창동 이규영 서정원 유진동 김길정 장명철 이용완
- 양정준 김광식 엄동현 김재도 김장식 류석운 박찬곤
- 이계진 정석균 강석두 신수용 김정숙 임만규 김현수
- 지수복 김춘빈 김갑주 천우병 노상휘 김승중 김원용
- 이민복 김갑동 배선용 유병화 김상목 권인수 김인태
- 안표순 김중성 민석동 7월 16일 ~ 8월 15일(회비납부일자순)

송금계좌 : 128-20-220610(제일은행) 010579-01-000329(우체국)

◆본회 홈페이지 : www.kbssau.or.kr ◆E-mail : kbssau@yahoo.co.kr ◆세미나실 Tel 781-8362, FAX 781-8269

2004 KBS 방송지표 함께 가자, 대한민국

KBS 혁신, KBS 가 변하고 있습니다

팀제로 조직을 혁신했습니다. 지역국 기능 조정으로 지역 방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혁신과 변화의 중심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있습니다. 항상 시청자를 먼저 생각하는 KBS가 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KBS는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수신료로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歷史散策-⑤



서기전

수원의 화성(華城)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된 것은 경하할 일이다. 팔달문의 웅성(甕城)과 장대(將臺) 등을 비롯하여 성곽전체를 말끔히 수축하여 관광명소가 됐는데, 조선 후기의 축성술과 함께 역사의 많은 얘기가 담겨져 있는 유서깊은 곳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正祖가 즉위하고 정권을 장악하자 비명에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초라한 묘를 명당인 수원의 화산(花山)으로 이장하면서 행궁(行宮)과 장용영(壯勇營)을 설치했다. 장용영은 국왕의 경호부대였는데, 서울에 장용내군(內軍), 수원에 외군(外軍)을 나누어 두었다.

그런 다음 화성축성이란 당시로서는 엄청난 대역사에 착수하여 서둘러 2년반 만에 완성했다. 이 공사의 목적과 자초지종은 화성 성역의계(城役義軌)라는 보고서에 소상하게 기록돼 있는데 그 규모와 재정지출, 동원된 인원과 자재 등을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지금 사람들도 그만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때 지위가 높지 않은 청년관료인 정약용의 제의로 거중기(擧重機) 등 근대식 장비를 사용했던 것은 유명하다. 팔달문밖에 달린 웅성은 동대문의 그

것과 함께 한국의 성문 방어를 위한 축조물도 다른 데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정조는 또한 성안의 구획정리를 해서 종로통과 같은 시전(상점)거리를 만들어 개성상인을 비롯한 8도의 큰 상인들을 유치하려고 했다. 여기에는 정조의 정치적·경제적 의도가 있었다. 서울의 육의전과 큰 시전 등 정부에 납품을 하거나 부민(富民)을 상대하는 상인들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장사를 했고 그밖

의 상점들은 난전(亂塵)이라하여 영업을 보장 받지 못했다. 이 난전을 금하는 권리가 육의전 등에 부여되고 있었다. 이를테면 유통망의 독점권을 쥐고 있어 기타 상인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이 독점권을 쥔 대 상인들은 정권의 실력자들과 밀착돼 있었는데 요새말의 정경유작이다.

당시의 실권자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것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정조의 왕위계승을 방해했던 노론중심의 벽파(僻派)들이었다.

정조는 즉위하고 2·3년 뜸을 드린후 벽파의 거목들을 숙청했으나 왕위를 넘겨준 할아버지 영조의 유언도 있어 영거주춤하여 반대 세력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못했다. 보다도 그 이전 백년이상 기반을 닦아온 노론중심의 '기득권' 세력이 상권외에도 서울근처의 토지를 점유하여 요지부동의 형세였다.

정조는 아버지를 추모한다는 명분으로 아버지의 새 묘원인 수원의 현릉원(顯陵園)에 자주 성묘했고 그 행행(幸行)길에 민정을 시찰하며 백성들의 소리를 친히 들곤했다.

정조의 화성축조의 진짜의도는 이곳을 신흥세력의 중심지로 개발·발전시킬 구상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정조는 독상(獨相·3정승 중 한자리만 임명한 것) 채제공(蔡濟恭)에

칙을 재천명하고 국왕의 등극에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근신하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곧 정계개편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집권벽파에겐 큰 충격이었다.

그 왕지(王旨)가 내리지 며칠 안돼 정조는 49세의 나이로 급사했다. 반대파에 의한 독살설이 널리 퍼졌으며 정약용의 여유당(與猶堂) 전서에서도 독살설을 시사하고 있다.

정조는 학식이 깊은 일류의 교양인이었다. 규장각학사 같은 엘리트 관료들도 국왕의 학문과 식견에는 모자를 벗어야 했다. 나라의 근본을 되찾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고 서정(庶政)을 쇄신하며 탕평을 추진하는 등 개혁정치를 표방한 영매한 군주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진취적인 신진관료와 선비들의 지지를 받고 백성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의 수원천도는 여러요인으로 좌절됐고 결국 자신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지금 수도이전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노대통령은 "구세력을 신세력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점에선 정조의 의도를 닮았다. "행정수도이전이지 천도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무슨 사법부가 포함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부질없는 실랑이다. 옛적엔 임금의, 오늘날엔 국가원수(특히 대통령 중심제에선)의 거처를 옮기는 것이 천도이다. 아무튼 천도란 지난(至難)한 일임을 화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필자는 본회 고문으로 소설가이며 KBS 시장을 역임했고 현재 예술원 회원임)

끝내 正祖의 뜻은 깨어지고... 水原城과 遷都

게 화성천도의 의향을 미리 밝히기도 했다.

동시에 정조는 부실화된 홍문관(弘文館)대신 규장각(奎章閣)을 신설해서 엘리트관료들을 모아 언로(言路)를 트게 하고 개혁정치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게 했다.

규장각엔 정권에 소외됐던 소론·남인의 인재들을 많이 뽑았는데 국왕의 새로운 친위세력을 형성하는 중심이 되었고 크게보면 신권(臣權)에 눌려온 왕권을 회복·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여담이지만 이는 나중 대원군정치와 그 맥이 통하게 된다.

정조의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비전은 시파(時派·국왕지지파)와 벽파의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남인시파가 천주교에 많이 연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채제공이 실각함으로써 벽에 부딪혔다.

정조는 승부를 걸어 탕평(蕩平)의 원

방송위 드라마 간접광고 제재

방송위원회는 8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MBC '황태자의 첫사랑', SBS '파리의 연인' 등에 대해 상업성 노골화를 우려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송위 심의위원회는 두 드라마가 드라마의 전체적 업종과 상품을 기초로 제작 방송된 것을 지적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상업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BS 국제다큐페스티벌 섹션별 소개

EBS는 8월 30일 부터 9월 5일까지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를 제외한 전시간대에 방송될 제1회 EBS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의 섹션별 작품을 선정했다. 다큐 '거장을 만나다'에서는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이란)감독, 베르너 헤어조그(독일) '시간의 수레바퀴', 크리스틴 초이(미국) '누가 빈센트친을 죽였는가?' 등과 레니 리페슈탈(독일), 미라네어(미국)감독의 작품 등이 소개된다.

ABU로보콘대회 주관 방송사

KBS는 9월 11일부터 열리는 ABU 로보콘대회의 주관 방송사 역할을 맡게됐다.

ABU 로보콘대회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19개국·20개 공과대학팀이 참가한다.

크롱카이트 언론생활 마감

미국의 전설적 TV앵커이자 언론인인 월터 크롱카이트(87)가 8월 17일 언론계에서 완전히 은퇴한다고 선언했다.

크롱카이트는 1981년까지 29년간 CBS저녁뉴스 앵커로 활약하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인"으로 자리 매김했으며 지난 1년간 칼럼을 써왔다.

SBS '파리의 연인' 최종회 57.6%

8월 15일 막을 내린 SBS '파리의 연인' 최종회가 57.6%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MBC '대장금' 최종회(3월 23일)시청률이 57.8%로 올 들어 최고 시청률이지만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떨어지는 여름철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로 평가되고 있다.

올림픽 축구대 그리스 전 시청률 24%

8월 12일 무승부로 끝난 한국과 그리스의 축구 예선 총 시청률이 24.2%를 기록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방송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축구팬들의 관심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KBS는 지금

모스크바에서 '열린음악회' 녹화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음악회'가 열린다. 노무현 대통령 러시아 방문 직전인 9월 10일 개최되는 '열린 음악회'는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를 양국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5만명의 관객이 동원될 예정이다. 김덕수 사물놀이 팀과 국내 유명 가수들이 출연한다. 또 러시아의 대형 가수이자 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인 국내에도 알려진 이오시프 코브존 등과 세계 최정상급인 볼쇼이 발레 팀도 등장한다.

퀴즈 영웅 탄생

대구에 사는 평범한 주부 김혜경(38)씨가 1TV '퀴즈 대한민국'에서 역대 최고 상금의 퀴즈 영웅이 됐다. 상금 5천168만원을 획득한 김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신문을 꼼꼼히 읽은 것이 상식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저예산 HDTV 영화제작 프로젝트 추진

KBS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고 KBS와 제작사가 공동 제작하는 '저예산 HDTV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KBS는 10월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5편의 HDTV 영화를 선정하고 내년 6월 시사회를 거쳐 극장과 KBS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순제작비는 3억원, 5편내외.

'가을동화' 이집트TV방영 첫 중동 진출

KBS 드라마 '가을동화'가 14일부터 이집트 국영방송 ERTU에서 방송되고 있다. 중동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류 열풍이 중동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RTU는 앞으로 가을 동화 18회를 매주 금요일을 제외하고 저녁 9시 10분에 방송하기로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이어 '겨울연가'도 방송할 계획이다.

KBSi 사보 창간

KBS인터넷(KBSi)이 8월 9일자로 타블로이드 4쪽크기의 폴 컬러 'KBSi 사보' 창간호를 내놓았다. 격월간으로 나올 KBSi 사보는 창간호 1면 톱을 '2004년 상반기 결산 -창사이래 최초 흑자 달성, 내용으로 채웠으며 2~3면은 창간기획 '세상을 바꾼 인터넷' 시리즈물과 창간사 및 축사 그리고 4면을 사원의 광장으로 할애했다.



회원여러분은 지금...

- 동정**
- ◆ 김인태(뉴미디어 디자인 대표) / 8월 10일 제8회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시상식에서 공로상 수상
- ◆ 김준호 / Voran Capital(인천 송도신도시 동북아허브개발추진회사) 고문으로 취임
- ◆ 김해근<KBS라디오 제작부 근무> / 8월초 레인주한 미얀마 대사가 미얀마 명예친선대사 임명장을 수여
- ◆ 서기원고문 / 10월 5일 예술원상 시상식에서 문학부문상 수상예정
- ◆ 송현식(재미방송협회 회장) / SBS·YTN·21세기 방송연구소(소장 강용식)가 백두산 대우호텔에서 7월15일~18일 개최한 해외 방송심포지움에서 '남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미주 한국어 방송의 어제와 오늘' 주제발표
- ◆ 장두원 / 8월 4일자로 한국간행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 장한성(21세기 방송연구소 이사), 박세호(민방협회사

- 무총장), 정창기(전LIVING TV사장) / 해외방송심포지움에 토론자로 참가
- ◆ 최돈민 / 모교 관동대 박물관에 기증한 소장품 300여점에 대한 도록 1000부를 발행하여 8월 초 박물관을 통해 배포

- 고희**
- ◆ 유영조 / (8. 3)
- ◆ 지승표 / (8. 7)

- 익수**
- ◆ 최순용 / (8.31)

- 자녀결혼**
- ◆ 장순재 / 아들 (8.21)

- 부음**
- ◆ 최정용 / 모친상 (8. 9)
- ◆ 이상갑 / 모친상 (8.17)

- 가족동정**
- ◆ 강석두 / 장남 강성원, 국제공인회계사(USCPA)에 합격
- ◆ 최순용 / 딸 최영란, 미국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8월 1일 관세청 교역협력과장으로 임명. 개청후 첫 여성과장

- 회원별세**
- ◎ 장태환 사우 / 8월 4일 별세. 향년 60세. 73년 KBS에 입사후 영상제작국 총감독 등을 역임



- ◎ 최영신 사우 / 8월 10일 별세. 향년 71세. KBS포항국장, 총무국 부국장, 88체육관장, KBS사우회이사, 감사 등을 역임. 특히 사우회 창설에 공헌한바가 크다.



노정팔 선배 2주기 추도회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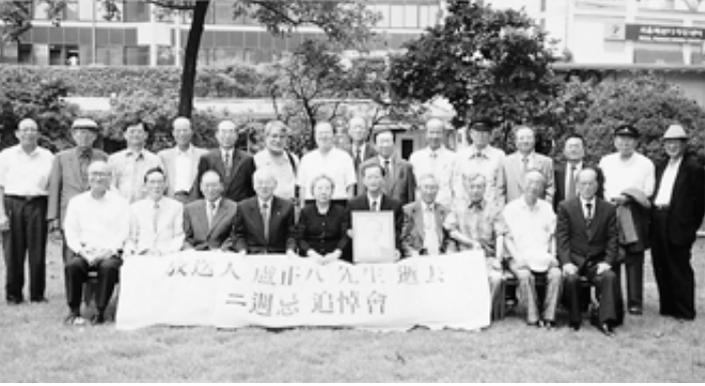
30여명의 후배 방송인들은 7월 30일 서울시내 스칸디나비안 클럽에서 노정팔 선배 2주기 추도모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3시간 동안 노선배의 생전 모습을 회고하며 가신님의 업적을 기렸다. 이자리에는 이영애 미망인, 노승일 차남 등 유족이 참석했다.

◆ 추도회 참석자
서영훈, 장한성, 인운섭, 박서립, 전영효, 서병주, 김수용, 조부성, 최계환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 김우상 / 150-045,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42 삼성래미안 412-1702 (02-2636-3799)
- 이용완 / 415-755, 경기 김포시 풍무동 유현마을 신동아④ 101-1503 (031-998-5182, 011-747-5161)
- 장명철 / 415-755, 경기 김포시 풍무동 유현마을 신동아④ 117-1403 (031-992-3005, 011-9722-4113)
- 이계진 / 220-042, 강원 원주시 명륜2동 동보노빌리티 202-604 (국회의원회관 533호실 02-788-2257, 033-747-2329)
- 노상휘 / 613-103, 부산 수영구 광안3동 1066-17 (051-752-5179, 017-840-5179)
- 김승중 /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47 한성⑤A-403 (아리랑TV 3475-5009, 02-783-8978)
- 김갑동 / 760-290, 경북 안동시 태화동 295-4 (054-852-1376)
- 배선용 / 760-260, 경북 안동시 안기동 63 (두영건설(주) 054-856-2003, 054-852-9183)
- 유병학 / 760-290, 경북 안동시 태화동 585-14 (054-852-3033)
- 김삼목 / 764-805,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 3리 377-5 (054-683-2849)
- 권인수 / 760-290, 경북 안동시 태화동 648-102 (054-852-4930)

송재극, 최흥목, 강대영, 김호영, 김홍태, 이동린
신병운, 박상진, 서규석, 오익규, 송현식, 김성호
유일봉, 홍종태, 김상헌, 김승한, 김광섭 (무순)



*기사첨처 '주소변경 회원' 난은 쉽니다.

친목회순례

2004년 8월 4일 영등포의 牛豆館(심재일 동문 경영). 2개월에 한번 씩 짝수 달의 모임(사진)이 있는 날이다. 10여 년만의 폭염이라는 요즈음, 더구나 북풍에 갖는 모임이지만 많은 동문들이 참석했다. 술한잔씩 하고 나니 신변잡기에서부터 세상 돌아가는 얘기까지 시끌벅적하다. 모두가 정치평론가요 경제전문가다. 특히 방송비평에는 일가견이 있다. 평생을 방송 현장에서 보냈을 뿐 아니라 나이도 60대 중반을 넘어서니까 요즘 세태가 영 맘에 들지도 않고 못 마땅하니 각 분야에 일가견 있는 비평가로 나서게 된 것 같다. 이 동문회는 91년 3월

연세대 행정대학원 신문방송고위과정 1기 동문회

KBS와 연세대학교가 방송 일선에서 일하는 부장급 이상의 간부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도, 방송 제작, 기술, 경영 등등 각 직종에서 42명을 선발해

때는 서운하고 참담한 느낌(이른바 물먹었다)도 들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짧은 수료기간이 우리 동문들에게는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됐고 동문들 간에 우의를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됐다. 모든 동문들이 KBS에 재직하고 있을 때는 매년 연말에 한번 씩 모임을 가졌으나 5년 전부터는 짝수 달 첫 수요일에 만나서 점심을 하면서 반주 한잔씩 나눈다. 때로는 2차에 다 노래방까지 섭렵하기도 한다. 당일 소요되는 경비는 각자 부담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 근교에서 모임을 갖기도 하고 제3 땅굴과 철원 노동당사, 철마가 멈춰 있는 월정리 역 등등 안

연세대 행정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부터 결성됐다. 벌써 13년째 접어들었지만 변함없이 우의를 나누고 있다. 집행부도 초대 회장 장영국 동문부터 시작해서 현 7대 회장은 윤기로 동문으로 3년째 재임 중이다. 솔직히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방송 현업을 떠나 고위 과정에 입학할

(글/이계복 사진/전세권)



시론

방송은 正道를 지켜야 한다

방송이 방송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성과 공익성의 실천에 철저히 충실해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공성은 방송의 절대 이념이고 공익성은 그 실천 기준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념은 송신자의 편의적 이거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융통적 개념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청자 즉 공중(public)의 관심과 이익, 그리고 편익에 근거하고 기준 삼아야 하는 절대적 개념이다.

그런데 최근 특정 사안에 관련된 특정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공정성, 형평성, 더 나아가 편파성 논란이 뜨겁게 계속되어 왔고 이 문제가 채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 광복절 전야에는 북한의 핵명 찬양가인 '적기가'가 버젓이 국가 기간방송인 KBS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으로, 그것도 국군의 해외파병과 연관된 특정 프로그램에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의 잣대가 되는 공정성이나 형평성의 기준이 흔들리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시청자 신뢰의 핵심조건은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진실성에 있다. 시청자의 신뢰를 잃게 될 때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는 사라진고 본다.

방송의 정도(正道)는 분식(粉飾)없는 공공성, 공익성 구현, 그리고 공정성과 정직성의 실천에 있다.

가벼운 사건이었는지 여부는 이 자리에서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방송의 편파성 시비나 소위 '적기가' 방송 등과 같은 방송의 자세나 내용과 직결된 근본적인 문제들이 계속 사회적 문제의 쟁점사안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용근 사우 (한서대학교 교수)





요즘 어떠세요?

崔季煥

‘한국 방송3사의 초대 아나운서 실장’

오는 9월 2일 저녁 7시,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제4회 방송인 명예의 전당 헌정식’에서 헌정될 최계환 선배의 주요약력 제목이다.

‘방송 3사 초대 아나운서실장’, ‘TBC 초대 보도부장’ 외에도 ‘30년 방송, 20년 교단생활’도 최선배의 인생이 집약된 매력있는 숫자들이다.

만고풍상 이겨낸 뚝심

최선배의 상징은 “문제 없어!”라는 말과 함께 두 손을 볼끈 쥐어 보이는 바디랭귀지다. 다재다능한 인재가 유난히도 많은 아나운서 세계에서 방송 3사의 초대 아나운서실장으로 세 번씩이나 정상에 올랐다면 만고풍상을 다 겪은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뚝심은 지금은 휴전선 비무장 지대에 들어가 있는 경기도 장단군 장단면 노화리에서 혈혈단신 남하한 뒤 방송계에서 일가를 이룬 저력이 되었을 것이다.

중학교 1학년 때 개성시내에서 처음 접한 라디오에서 아나운서의 소

리가 나오는 것이 신기해서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장단촌놈’의 꿈을 쫓 뒤 그것을 현실화시킨 저력도,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 맞춰 세상을 살아온 뚝심의 결과일 것이다.

미디어 케이블 TV아나운서 국장인 장남 최춘식은 항상 선배의 자랑거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손녀 수영아가 TV 제작사인 ‘리얼리티 비전’ PD가 됴으로써 방송인 3代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으니,

“방송이 입에 오르내려서야...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야 건강해집니다”



김상준 전 아나운서 실장이 자신을 견습기자로 뽑아 훈련시켜준 최계환 초대 아나운서 실장을 만나 환담

방송인 3代

선배는 ‘父子 아나운서’로 동료와 후배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SBS

자랑거리가 또 하나 늘어났다.

유봉식 일본MK택시회장의 서비스 정신을 다룬 ‘봉사 개혁에 코드를 맞추라’를 비롯해서 ‘방송입문’, ‘설

득과 커뮤니케이션’, ‘라스트 바탈리온’ 등 7권의 저서와 MBC ‘노래실은 역마차’ (1961), TBC ‘장수무대’ (1964), KBS ‘토요초대석, 9시 스튜디오’ (1973) 등의 프로그램에 선배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또하나의 시작

말이 방송에 이르자 후배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면서도 “요즘 일반 시청자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에 가슴 아프다”고 했다.

선배는 고문으로 있는 강남 신사동 광고회사에 가끔 들리고 있으며 금년들어 본인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고 집필에 들어갔다고 했다. 내년 회수에 맞추어 자서전을 출간하려는 계획이란다.

아직도 병원에 몸을 뉘어본 적이 없다는 선배님의 건강은 ‘방송 30년, 교단 20년, 신나는 노후 30년’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리라 믿는다. 평소 즐겨 쓰는 모자 차림으로 지하철에 오르면 좌석을 양보 받지 못할 정도라니 언제쯤 ‘노약자 직위’에 오르실지 지켜볼 일이다.

‘문제없어!’

목동 방송회관에서 환담을 마치고 뒤돌아서서 최선배의 모습에서 또 하나의 ‘시작’을 준비하는 청년 최계환을 보았다.

(글 / 김상준 사진 / 이종문)

방 송 시 평

순바닥만한 채소 밭에서 우리 방송계의 현실을 본다. 좁은 공간에 많은 씨앗들이 썩어 터, 어느새 텃밭을 가득 메운다. 그러나 자리면서 연약한 줄기만 길어지는 소위 ‘웃자란’ 채소가 되어간다. 잎이 탐스런 채소를 기대했는데 콩나물처럼 키 크로 연약한 줄기 채소가 되어 그대로 두면 아무런 쓸모없는 잡초가 되고 만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잘 자란 한 두 놈만 남기고 가차 없이 썩어 버리거나 적절히 이묘(移苗)를 해주어야 좋은 채소를 얻을 수가 있다. 제 아무리 비료를 많이 주어도 뿌리가 제대로 뻗어나가 충분한 양분을 흡수할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잘 자랄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우리 방송계는 마치 좁은 텃밭에 가득 자란 채소가 썩어내지도, 이묘도 하지 않고 비료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연약한 줄기만 ‘웃자라’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서 이미 건강하게 자란 몇 포기 채소가 주변의 양분을 거의 흡수하고 있어 뒤늦게 썩어 터

많은 채소들이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연약한 몸체를 서로 부비면서 생명만 간신히 부지하고 있는 한심한 텃밭의 모습

‘雜草밭 방송계 이대로 둘 수 없다’

‘방송의 날’에 생각한다

이 우리 방송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채소처럼 잘 나가는 방송만 남겨두고 모두 썩어낼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또 하나의 자연의 법칙은 연약한 채소들은 곧 병충해의 운상이 되며 불원간 건장한 채소가 지도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자연 현상은 자연 생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텔레비전이 교육방송을 포함하여 5개 채널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상파방송이 지방사 포함하여 42개 채널,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119개의 자체 방송 수백채널, 채널사용사업자 139개, 위성방송 101

채널 등... 이제 TV채널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이다. 그 중에서 지상파 몇 개 방송과 홈쇼핑 등 몇 개의 케이블방

송을 제외하면 모두가 ‘웃자란’ 채소의 신세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 ‘자본’이라는 비료도, 썩어 내거나 이묘하는 ‘관리’도 부재한 형편이라 이대로 가면 몇몇 방송을 제외하고는 병충해와 같은 외세에 모두 휩쓸리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더욱이 DMB라든가 IPTV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출현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News

Corp., Bertelsmann과 같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방송은 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정책당국은 방송의 난립을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긴다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든가 필요한 지원을, 시기를 잃기 전에 단행한다든가 하는 적절한 관리(통제가 아닌 지원)가 무엇인지 찾아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하면 막강한 TV매체가 등장하기 전부터 이 매체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하고 ‘웃자라’는 채널사업자와 제작자에게 ‘비료’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서둘러 넣은 프로그램으로 연명해 가는 현실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으로 지상파방송사들은 새로운 매체에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한류’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제작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살길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싶다.



장한성 사우 (한국방송인회 회장)

‘방송의 날’ 유래는...

처음으로 ‘방송의 날’이 10월 2일로 제정된 해는 1964년이었다. ITU가 할당된 호출부호 HL을 서울 방송국이 처음 사용한 날이 1947년 10월 1일인데, 10월 1일은 ‘국군의 날’ 3일은 개천절이어서 10월 2일로 정할수 밖에 없었다. 1964년 이전에는 KBS가 JODK 개국일인 2월 16일을 기념일로 했었다. ITU가 한반도의 호출부호를 HL로 할당된 날이 9월 3일인데, 한국방송협회는 1978년 이 날을 ‘방송의 날’로 정하고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다.

회보 · 홈페이지 원고 모집

매월 발간하는 회보와 항상 떠 있는 홈페이지에 실릴 회우 여러분의 원고를 환영합니다.

- ◆ 테마 : 시사, 회고기록, 역사물, 시평, 논평, 제언, 수필, 기행문, 생활·가족이야기, 건강관련 체험기, 회귀한 사진, 회원, 가족 동정, 시, 콩트(연재물도 가능)
- ◆ 수량 : 200자 원고지 5장 이내 또는 A4용지 1장 정도
- ◆ 접수처 : (우) 110-310서울 종로구 경운동88 수운회관 709호 E-mail : cckbs2004@yahoo.co.kr 홈페이지 : www.kbssau.or.kr Fax : (02)3210-1449
- ◆ 마감 : 회보 - 매달 15일까지, 홈페이지 - 수시